



2002년 대입 전형 제도의 의미와 과제

이 현 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I. 서언

2002년을 위한 새 입시 제도가 마련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입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획기적 방안이라는 견해와 이에 못잖은 염려가 교차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는 해방 이후 이번의 2002년 무시험 전형 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크게는 14차례, 작게는 무려 35차례의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잦은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를 평균해 보면 1년 반마다 한차례씩 바뀌어 온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 정책 변화의 기초는 주로 대학 입시의 국가 관리 정책, 대학 자율 관리 정책 그리고 국가·대학 공동 관리 정책의 반복되는 양상을 거듭해 왔다. 또한 관련 요인들의 개선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제도 자체만의 개선을 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입 정책 변화의 경향을 볼 때 대입 제도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며, 학생 선발이 누구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의한 것에 집착해 왔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입시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볼 때 국가와 대학간의 대입 제도 운영을 놓고 서로 빈번한 갈등 관계에 놓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와 학생 선발

권한을 대학에 일임할 수 없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을 때는 국가 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국가 관리하에서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리가 우세하면 다시 대학 관리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대입 정책은 입시와 관련된 사회적 물의를 배제하며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 교육 기회를 공정히 배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 왔을 뿐, 하급 학교 교육에서의 파행적인 입시 위주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 입시 제도는 대학 교육의 이념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다기보다는 대학 교육의 수요 과다에서 빚어진 과열 경쟁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육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대학 입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관련자들의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형평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 관한 논의는 정부의 '입시 관리권'을 비롯해 대학의 '학생 선발권', 고등학교의 '학생 추천권', 학부모의 '교육 위탁권' 그리고 수험생 자신들의 학교 선택과 관련된 '대학 선택권'이나 '학습권'이 모두 존중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새로 도입되는 2002년 무시험 전형 제도

는 그 근본 철학에 있어서 기존의 입시 제도와는 크게 다른 면이 있다. 고교 과정의 성취 수준을 토대로 대학의 자율에 의한 대학 선발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수학능력시험의 반영 비율과 전형 요소로서의 비중을 조정하여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영·수·국 위주의 성적을 준거로 한 선발 방법의 해소 등의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입시 자율권을 신장하면서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의 세심한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입시 제도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세기적 전환기의 대학 입시 개혁의 필요성

우리 나라 대학 입학 제도는 수차례의 개혁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개혁들은 또 다른 개혁을 불러왔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나라 교육 현장에서 대학 입시 문제가 커다란 교육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 선발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개별 대학의 필요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 입학 제도는 정작 사회적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해 온 게 사실이며, 이 점에서 대학 입시의 자율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면 자연 대학의 필요와는 먼 대입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각 대학이 입학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대상은 고교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업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각 과의 특성과 전공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선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대학생 선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

던 점은 대학의 필요와는 거리가 먼 대학 입학 제도였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적격자를 효율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의 준거와 전형 자료가 다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중심의 고교 내신 성적이나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의 경우 모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전형 자료의 제한성을 탈피할 길이 없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제한받아 왔고, 전공 계열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이 배제되어 왔다. 한편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대학 입시의 문제점이 없었던 게 아니다. 한 마디로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의 종속화 현상에서 탈피할 수 없었고 대학 입시 여하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좌지우지되어 왔다. 대학 입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 신입생 선발 내용이 오늘의 고등학교 현실을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암기 위주,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 비판받는 이유도 대학 입시 제도에서 지금껏 실시되어 온 학력고사가 고차적 정신 능력 측정에 미흡하였기 때문에 고교 교육에 미친 영향 또한 암기 위주, 문제 풀이 위주의 학습 활동에 치중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은 과열 과외와 과액 과외를 만연시킨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고교 내신 성적의 입시 반영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 입시 제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전환되어 반영 비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종래는 반영 비율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전인 교육을 외면한 점수 위주 평가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과중한 입시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교육적 의미가 매우 낮은 '교과서적 단편 지식'이나 실용성과 기초 인성 함양 등과는 거리가 있는 '쓸모 없는 지식' (useless knowledge) 습득을 위한 학습 활동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적성의 발견과 신장이 어려웠으며 학부모도 교사도 그리고 학생들과 대학 당사자들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달갑지 않은 제도였다.

이러한 대학 입시의 누적된 문제는 자연 사회 문제화되어 왔으며, 교육 부조리와 입시 부조리 그리고 과열 경쟁에 의한 대다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탈락 현상 등의 고질적인 교육 병리 현상으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지난 수년간 대략 80여 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재수생 등의 수능 지원자 중 겨우 30여 만 명 정도만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1/3을 위해 2/3의 교육 방임(educational neglect)을 강요한 결과를 초래해 왔다. 결국 이러한 교육 현실은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 내몰리는 학생들의 경우는 '교육적 학대'(educational abuse)를 받고 있고, 대학 입시와 거리가 있고 학업 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은 교육 방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학 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함께 공공성을 신장하는 방향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그 대안의 하나가 2002년 전형 제도라 할 수 있다.

Ⅲ. 대안으로서의 2002년 새 입시 제도

우리 나라 대학 입시의 누적된 문제점들을 살펴본 바 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는 쉽지 않다. 그러나 향후 도입될 2002년 새 입시 제도는 많은 면에서 교육의 정상화와 수험생의 기회 확대를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새 입시 제도의 골격은 고등학교 생활의 학력, 인성,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게 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형 자료로 하고, 대학의 결정에 따라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 전형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형 요소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자율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의 학생 추천 권한을 인정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국가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스스로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는 골간이다. 이러한 새 입시 제도는 대학 자율 결정에 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을 확대시키고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복수 지원, 특별 전형,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그리고 추가 모집 등을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지원 기회를 확대시킨 특성이 있다.

따라서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보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제도이다. 입시 제도 개선의 원칙에 있어서도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 입시가 지니고 있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 결여', '중등 교육의 파행적 운영', '대학의 자율성 제한', '대학 입시 관리의 공공성 결여' 등을 개선하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행 과정상의 여러 쟁점들을 아울러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대학 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었으며,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존중되어 전형 방법의 자율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학생의 선택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복수 지원의 허용으로 학교 선택권이 강화되었으며, 전형 기준의 다양화와 함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선전형 문항으로 인한 암기 위주의 교육 풍토를 지양하고, 창의력 개발과 잠재 능력을 발

굴할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하는 뜻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자질, 특기, 경험 등을 신장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고등 정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단순한 학력 위주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고교 과정의 전반적인 생활과 잠재 가능성 등을 준거로 삼는 다양한 선발 과정이나 전형 요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되는 학교생활기록부나 사회 봉사, 논술 고사 그리고 변별력 신장을 목적으로 개선된 수학능력시험 등 시행 과정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아울러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IV. 2002년 대입 전형 제도의 특성

새로운 1000년의 신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전문화로 대변되는 지식 기반 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삶의 양식 변화 그리고 교육 양식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어떻게 창의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지식'과 '생산적인 지식'으로 재창출하느냐의 문제가 21세기의 주요한 교육적 기능이 될 것이다. 교육 내용이나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탈제도, 탈학교, 탈학일 등의 다양한 잠재력 개발에 치중될 전망이다.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한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결국 다양한 선발과 다양한 전형 요소를 통해 잠재력 있는 다양한 학습자를 발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시 될 것이다.

Peter Drucker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지식 사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Sorokin과 '정보화 사회'를 주창한 Daniel Bell 역시 지식의 표현과 전달을 중시함으로써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의 교육 선발은 지식 기반 사회에 걸맞는 잠재력

과 창의력 개발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 대학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선발이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물론 2002년부터의 대학 신입생 선발에서는 잠재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여 대학 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선발 정책 방향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잠재력 개발 선발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2년의 새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특성은 한 마디로 「입시」의 개념으로부터 「전형」의 개념으로 바뀐 셈이며, 「타율」에서 「자율」로 그리고 「공급자 위주」로 전환한 셈이다. 이와 함께 종래의 정형적 입시 관념에서 다양성과 수시성 그리고 개별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제도이다.

1. 2002년 제도의 일반적 특징

새 대학 입학 전형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 방향을 보면 학생의 잠재 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다양화,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고 경쟁 유도보다는 대학 교육의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평생 교육의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대학 입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새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특징은 각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 방법을 시험에서 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제도에 따라 실질적인 복수 지원 기회를 확대시킨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국·영·수 위주의 필답 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에 논술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둘째, 전형 유형에 있어서는 종전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 시행하지만 일반 전형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특별 전형 경우도 전형 대상과 자격 기준 및 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확대 시행토록 한 점이다. 셋째는 선발 일정을 국가 조정 선발 일정인 정시 모집과 대학 자율 선발 일정인 수시 모집과 추가 모집으로 이원화시키고 있는 점이다. 넷째는 이러한 기본 구조의 개혁과 함께 전형 자료도 필수 전형 자료라 볼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구술 고사, 논술 등 필답 고사, 신체 검사, 실기, 실험 고사, 교직 적성·인성 검사 등의 기본 자료와 함께 기타 전형 자료로 수상 실적이나 봉사 활동, 자격증 등의 업적 및 경력 인정 자료 그리고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으로 다양화시킨 점이다.

새로운 입시 제도는 결국 선택 기회의 다양화, 전형 자료의 다양화, 제도의 다양화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론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론적 차원에서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객관적인 활용 방안과 실질적 복수 지원 기회의 합리적 시행 등의 제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대학 신입생 특별 전형 확대

2002년 신입생 선발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수시 입학의 확대, 특별 전형 대폭 확대, 학업 성취 위주의 선발 기준 퇴조 그리고 선발 시기와 전형 요소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그 중 특별 전형 확대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특별 전형 의의

일반적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일반 전형이 비교적 정

형화된 기준과 전형 요소 및 절차에 의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본다면 특별 전형은 다양한 준거에 의한 잠재력 계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케이스 중심 방법이라는 데에서 '열린 전형(open admission)' 이자 전략적 전형 내지 개별 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 전형은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입시 제도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되는 전형으로 기존의 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서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대표적인 선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추천제와 특기자 선발 등의 특별 전형은 학생들의 과중한 시험 부담을 줄이고 전인적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전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무시험 전형의 경우를 보면 특별 전형 그 반영 비율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유형도 '99년의 18종에서 99종으로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경직된 일반 전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준거에 의해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절차로 특별 전형하겠다는 의미이다.

대학 신입생 특별 전형 의의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 신입생 선발에 있어 '다양성', '자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근간으로 다양한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다양성과 대학 선발의 자율성 측면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 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존중되어 내신 성적 반영이나 수능 점수 반영 이외의 다양한 전형 방법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지니어 단순한 선다형 문항으로 인한 암기 위주의 교육 풍토를 지양하고 다양

한 잠재력을 신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기에 숨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고 특성화된 교육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 중의 하나이다.

셋째, 단순한 학력 위주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고교 과정의 전반적인 생활과 잠재 가능성 등을 준거로 삼는 데서 전인적 선발의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선발 과정과 전형 요소가 가능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넷째, 열린 교육 체제와 학생 고객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과 소질 및 잠재력을 갖춘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간접 효과를 주요한 의미로 부여할 수 있다. 물론 대학 스스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특성적 선발의 의미를 지닌다.

다섯째, 특별 전형 확대에 따른 성적 위주의 선발이 축소됨으로써 새 학교 문화 창조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인성 개발과 인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특별 전형 확대에 따라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가 확대되고 대학 교육이 개방될 수 있어 '모든 이를 위한 대학 교육(college education for all)'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다. 물론 특별 전형 확대 여부에 따라서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 선발을 통해 대학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별 전형 의미 중에서도 언제, 누구든, 무슨 영역이든 잠재적 소질과 특기 그리고 경험을 갖추기만 하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대학 교육'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커다란 의의라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특기와 소질 및 경험을 가진 학생의 자질을 개발하여 21세기 부합되는 다양한 인

재를 개발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2)추천 입학제의 확대

특별 전형 유형은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 추천 입학제의 경우도 전형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물론 추천자의 자격 규정이나 추천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등 추천 입학제의 운영 과정에서의 쟁점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추천 입학제의 확대는 사회 전체가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추천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데서 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추천제의 유형을 보면 동창회 추천, 후원회 추천, 고교장 추천, 공익단체 및 사회 봉사 단체 추천, 과목 담당 교사 및 담임 교사 추천, 교육감 추천, 산업체장 추천, 인간문화재 추천, 자기 추천, 종교 지도자 추천 그리고 지역인사 단체장 및 기관장 추천 등 32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추천 입학제의 확대는 추천자 자격이나 피추천인 자격 등 선결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일단은 지역 사회나 학교 그리고 학생의 삶과 관련된 분들이 추천한다는 점에서 권장합직한 제도이다.

일찍부터 추천제 입학을 도입한 서구 사회에서처럼 취업에서는 물론이고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추천인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성적이나 시험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V. 특별 전형으로의 추천 입학제

21세기는 대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변화되어 정형적 캠퍼스 중심 대학 교육의 관념이 훨씬 감소될 것이고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세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

등학교 교육과 대학간의 위계적 구분이 없어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이 교과 과정상이나 학점 이수에 있어서 연계 체제를 이룰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교과 내용 역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내용이 추가 되고 학생 개개인의 특수한 자질과 능력에 기초한 열린 고등 교육 체제가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사회와 사회의 자원이 곧 대학 교육의 자원화로 연계될 것이고, 이 점에서 사회의 각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추천에 의한 선발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추천 입학제의 의미가 높아지고 대학과 사회간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게 되면 추천 입학제가 보편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추천 입학제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 입학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우선 대학별로 개별 대학이 처한 환경이나 교육 여건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계열 분포 및 교육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 전형 전략과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소규모 단설 특수 목적 대학의 경우에는 '전원 추천 입학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대규모 종합 대학의 경우라 할지라도 전공 영역이나 특성에 따라 '계열별 추천 입학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추천 입학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추천인단이나 추천 기관을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추천인단은 대학과 지역 사회 또는 대학과 인접 교교간 협의 과정을 거쳐 공정성과 신뢰성을 견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해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 기관을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셋째, 추천의 근거와 준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전형 준거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차적으로 대학의 수학 능력에 대한 점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후 기타의 추천 요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수학 능력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둘 경우 추천 입학제의 본 취지는 희석될 것이다. 기본 수학 능력은 추천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만 간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특출한 자질과 특기, 재능과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추천의 시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고3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기 추천제'를 도입하여 중3 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는 '조기 추천제'를 도입하여 추천을 함으로써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보다 자신감 있게 수학을 하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 추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시 모집과 예약 입학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추천의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거나 '다인(多人) 추천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추천 자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나라 입시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과열 현상의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자격과 근거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투명성 있는 추천 입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추천 기관이나 추천인을 대상으로 '추천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천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추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룹 추천 입학제'도 고려해 보자. 즉, 일련의 그룹이 집단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써 이 또한 추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추천 입학제를 확산시키는 간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곱째, '대체 추천 입학제'도 고려해 보자. '대체 추천 입학제'는 추천할 만한 충분한 준거나 경험, 증명, 자격 그리고 입상 경험 등이 있을 때 이러한 자질이나 자격 및 경험을 부여한 기관이 추천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방법이다.

여덟째, 추천 입학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에 대한 추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추천을 당연시하고 비중을 두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에 있어서나 진급 등 추천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때 대학 추천 입학제가 더욱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입학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다양한 소질과 자질 그리고 특성을 지닌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려는 노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가능한 한 추천 입학 비율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추천 입학 활성화는 신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발굴되지 않은 자질 있는 학생을 사회 전체가 찾아 창의력 있는 21세기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큰 뜻도 있다. 단지 대학과 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어떻게 특별한 소질과 자질을 갖춘 대상을 합리적으로 추천 입학시키느냐의 문제는 향후 각 대학들의 생존 전략이자 우리 나라 대학들의 창의력 있는 교육 기반을 확립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추천 입학제가 활성화되면 학원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암기 위주의 시험 준비를 하려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사나 기관이 신뢰성 있는 추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추천 유형이나 추천 자격자(또는 기관)를 더욱 확대하되 선발을 위한 선택권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대학 입학에 대한 사회적 추천이 확대되어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특별 전형이 정착될 수 있고, 대학도 학생 자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VI. 2002년 전형의 과제

교육 개혁에 따른 대학 입학 전형 제도는 열린 교육 체제와 학생 소비자 시대(student consumerism)에 부합하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35회에 걸친 세부적인 대학 입시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듯이 이번의 새로운 전형 제도도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다양화에 따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전형 요소 방법 그리고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충분한 검증과 연구 검토가 부족할 경우 선발 기제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그것은 대학들 스스로 어떠한 학생을 유치하여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와도 연관된 것으로서 평가 요소의 신중한 선택과 평가 방법과 시기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전형 요소 중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과제이다. 단순히 획일화되고 정량화된 학생부의 작성과 이러한 학생부 기록을 도식적으로 활용하는 대학 전형은 긴 안목으로 볼 때 교육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작성을 할 때 '선택될 수 있는 졸업생'이 되도록 특성 있는 기술과 정확한 전형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술을 하는 일이다. 특히 일부 고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변별력이 부족한 점이나 고교간에 존재하는 학력 차의 감안 문제 등 제반 쟁점들에 관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고교 교육 정상화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고등학교와 대학, 정부 그리고 학부모를 위시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교사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논술 교사를 대비한 과외가 성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학원 등의 비제도권 교육이 성행할 수 없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고 대학들도 국·영·수 위주의 가중치 부여에 의한 전형이나 학력 위주의 선발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대학들이 정시 모집 기간에 혼잡이 불가피한 입시 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수시 모집 제도를 정착시켜 연중 수시로 필요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노력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특별 전형을 확대하여 다양한 유자격자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다만 특별 전형 확대에 따른 과제도 적지 않다. 특기 적성을 개발하고 특기 적성을 전형 요소로 하여 특기자를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일부에서 성행되고 있는 특기 적성 과외의 확산에 따른 전 과목 과외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특기자 선발에 의해 합격한 학생이 특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공 분야에 진학함으로써 중도 탈락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가능하다면 특기 적성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 진학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급조된 특기 적성'을 만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 수학 능력과 관련된 기초 학력 없이 특기만으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도 불식시켜야 하고 홍보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대상 특기자 전형도 본 취지와 교육적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수시 모집을 확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학사 운영 체제를 감안한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입시의 권한이 대학에 위임된 만큼 대학들은 무시험 입학제, 연중 전형제, 고등학교 추천 입학 확대, 자격증 입학제 그리고 전생애 입학제(lifelong admission), 전원 입학제, 예약 입학제, 부분 입학제, 협약 입학제(Contract admission) 등의 다양한 방법과 전형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에서 연중 학생 선발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운영을 담당할 입학 관리처나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향후 외국 학생 유치와 비정규 학생의 유치 그리고 기상 대학 프로그램과 사회교육원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선발을 위한 외국인 전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 이외에도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지나친 일류 선호 성향이나 과잉 경쟁의 교육관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입시 혁명, 학부모 혁명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은 고등 교육을 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수용되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려는 자세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이 어떤 학생이든 대학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교육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신장될 수 있고 입시에 따른 국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필필**

(참고 문헌)

- 교육부(1999) 2002학년도 새 대학 입학 제도의 이해 ; 서울 : 교육부
- 교육부(1998)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안 ; 서울 : 교육부
- 교육부(1998) 2002학년도 대입 제도 관련 사례 발표 ; 서울 : 교육부
- 이현청(1999) 대입 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교육 관계자 심포지엄 자료집 : 대교협
- 이현청(2000) 21세기와 함께 하는 대학; 서울 : 민음사
- 이현청(1998) '대학 입시 개혁과 교육 경쟁력' ; 교육부, 교육 월보 8월호
- 이현청(1999) '2002년 새 입시의 의미와 과제' ; 전국교무처장협의회 연차 세미나 자료집